불자 세상보기

국민 63% "그린벨트 그대로"

정부, 일부 개발제한 구역 전면 해제 발표
환경단체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

사찰환경-산림파괴 등 우려

놓아 두어야 하느니/ 놓아 두어야 하느니/ 그대로 놓아두어/ 그 푸름의 목숨/ 지켜야 하느니/ 그렇지 않고는/ 우리 목숨/ 우리 살림 끝내/ 잿더미로 돌아감에/ 어찌 막을 힘이 있으리.(고은 시인의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 기념시)

그린벨트 지정 실효성이 적은 일부 권역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이 11월24일 발표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27년만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경실련 등 16개 시민·환경단체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원칙 발표와 같은 시각 홍사단 강당에서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공동대표·고은시인 등 8인)'을 창립, 대대적인 반대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행동'은 이날 '국민의 62.8%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24.9%는 '그린벨트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응답)는 갤럽의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그린벨트 해제 및 조정은 국민의 의사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의 해결을 주장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중 상당수는 그린벨트 해제를 "경제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것"(67.2%)으로 보고 있다.(6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조사) 또 투기문제와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구조가 기형적 형태로 바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밖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는 지역(존치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해제기준의 형평성 문제, 재산권 제한에 따른 집단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8백60개의 전통사찰 등 그린벨트 지역내에 위치한 상당수 사찰도 그린벨트 제도완화로 더 많은 사찰환경 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원회 전재경 전문위원(법제연구원)은 "교계에서도 그린벨트 내의 사찰현황과 목록을 조사하는 한편 그린벨트 완화조치로 인한 사찰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산권 침해 의견 수렴, 지역의 균형발전, 토지이용의 형평성 부여,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 지난 71년 도입이후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속돼 온 이 제도가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숲은 생물의 보금자리"

"자연의 바람이 있어 문을 열어 스스로 열고, 자연의 바람이 있어 땅을 불어 깨끗하게 하며, 자연의 바람이 있어 꽃을 불어 땅에 흩으니 꽃은 무릎에까지 이른다."(세기경)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서는 자연의 혜택을 계속 얻을 수 없음을 설하고 있다. 〈열반경〉은 "황막한 길에 좋은 우물을 파거나 과수를 심어 숲을 만듦으로써 늘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부동국(不動國)에 태어난다"고 설했다. 또 〈범망경〉은 "산림, 들과 산, 남의 집, 동네, 사찰, 가로수, 나라의 물건 등과 그 밖의 온갖 주인이 있는 물건을 고의로 불태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거대한 '산소통'이자 '물 저장고', 수많은 생물들의 보금자리인 숲과 산림의 소중함을 가르친다. '인간(正報)과 자연(依報)은 둘이 아니다(依正不二)', '몸과 땅은 본래 두 모습이 아니다(身土本來無二相)'.

"금강산 곳곳이 불교성지 였다"

■금강산 다녀온 스님·불자들의 목소리

그리운 금강산, 노래와 글로만 가슴앓이 해오던 금강산길이 반세기만에 열렸다. 11월18일 현대금강호가 4박5일간의 여정을 위해 첫 고동소리를 내며 동해항을 떠나던날 배안에는 경우(부산 대각사 조실)·도성(부산 태종사 조실)스님을 비롯 코미디언 송해, 가수 현철, 현숙 등 많은 불자들이 탑승해 있었다. 특히 평안도 양덕이 고향인 도성스님은 이번 여행에 남다른 감회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19일 일정 첫날, 불자들이 가고싶었던 신계사터는 차창으로만 볼 수 있었다. 현대측이 관광객의 상당 수에 달하는 불자들을 배려해 관광코스에 추가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했다. 경우스님은 "〈화엄경 보살부처품〉에 설해진 바다속에 앉아 있는 부처님의 세상 '금강'에서 유래한 곳답게 삼천대천세계에서 제일 가는 불교성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성스님은 "이번 관광코스에서 내금강이 제외돼 표훈사, 유점사, 정량사 등 많은 사찰을 가볼 수 없었다"며 "북한 불교를 살펴볼 수 있게 내금강 코스도 개방됐으면 좋겠다" 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불자가수 현숙씨는 "북한의 사찰과 승려를 보지못해 안타까웠다"고 말했으며 북한측의 입국 거부로 마지막 날만 참가한 송해씨는 "남북한 서로가 진정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가까워 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북한의 사찰을 보지 못해 아쉬웠다" 고 밝혔다. 이번 기행에 참가 했던 불자들은 한결같이 "통일후에도 불교가 금강산의 주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미희·김주일 기자
(mhcheon@buddhapia.com)

◇두 스님이 본 금강산은 지연 그 자체로 불법의 세계였다. 신계사터를 차창으로 본 불자들은 관광코스 조정을 바라고 있다. 사진은 만물상을 뒤로한 도성스님(왼쪽)과 경우스님.

"금강산에 위락시설 안된다"

녹색연합 금강호 선상서 설문 '반대 67%'

지난 11월 18~22일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관광객 가운데 97%가 금강산 환경이 잘 보전됐다고 봤으나, 70%는 현재와 같은 관광이 계속되면 환경이 파괴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응답자의 67%는 금강산에 골프장이나 스키장, 카지노 등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안된다'고 답했으며, '괜찮다'는 응답은 35%였다.

이런 결과는 녹색연합(사무총장 장원)이 11월21일 동해로 귀환하는 현대금강호 선상에서 1백1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해 얻은 것.

녹색연합은 "금강산 관광 개발은 생태친화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관광개발에 앞서 금강산의 자연생태와 환경용량에 대한 공동조사를 현대와 북한쪽에 제안.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복지부 가정의례 법률 개정안

앞으로 장례식장에는 의식절차 등을 지도하는 장례지도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가정의례 관련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염습비용과 관련된 부작용을 막고 국제수준의 시신 처리기준에 따르기 위해 2003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장례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99년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 결성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오는 99년 한해동안 국내에서 노인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조직이 11월 21일 결성됐다.

'세계 노인의 해 한국조직위원회(세노위)'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중앙일보 빌딩내 세노위 강당에서 창립발기인 대회 및 위원총회를 열고 국민회의 김병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들어갔다.

세노위는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시론

먹구름 위에는 태양

이번 조계종 사태는 충격적이었다. 마치 원폭이나 터진 듯 그 파장은 사방으로 번져갔다. 산중의 장로들은 허탈감에 젖어 말을 잊었을 것이고, 수행에 정진하던 스님들은 불어닥치는 스산한 바람에 몸을 움추렸을 것이다. 더구나 신도들이야 오죽했으랴. 좌절감 배반감 모멸감 같은 것이 복잡하게 뒤엉킨 속에서 자기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하기는 불교 안에도 살벌한 말들이 없지 않다. 살불(殺佛) 살조(殺祖)니 살적(殺賊) 살부(殺父) 살모(殺母) 따위가 그것이다. 그러나 살불 살조는 부처님이나 조사에 의존해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 면목을 되찾으라는 충고요, 살적은 아라한을 이르니 번뇌라는 도둑을 모두 없애서 열반을 실현한 성자임을 표시한다. 그리고 살부와 살모도 무명을 아버지에 비유하고 탐욕을 어머니에 견주어 이를 제거하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 원 섭
〈시인〉

> 부처님은
> 폭력을 금하셨다
> 양보하고 참으며
> 합의하라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폭력을 금하셨다. 코살라국의 침략을 받은 석가족의 청년들이 계율을 지키기 위해 화살을 허공으로만 날리다가 몰살당한 예에서 보듯, 설사 나라를 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폭력은 안된다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셨다.

이번 조계종 사태를 놓고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밀고 들어오니 맞설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강변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략하는 적군도 죽이지 못했던 앞의 예에서 보듯 이것으로는 이번의 사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부터 돌아보아 양보할 것을 양보하며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합의를 도출하려 애썼어야 했다.

부루나가 스나파란타 지방으로 포교하러 가겠다고 하자 부처님은 그곳 사람들이 거칠고 사납다는 점을 들어 물으셨다.

"그들이 채찍으로 때리면 어쩌겠느냐."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칼로 나를 베지 않았으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칼로 베면 어쩌겠느냐."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나를 죽이지는 않았으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너를 죽이면 어쩌겠느냐."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이 고통 덩어리인 삶을 끝나게 해 주었으니,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의견이 대립할 때 이런 태도가 불교적인 대응방법이다. 이렇게 불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총무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본사 단위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음직 하고, 총무원을 아예 없애고 본사 위주로 나가는 방책도 있을 수 있다. 종정 중심체제나 명망 있는 장로 몇 분의 결정에 일임하는 체제도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지금의 체제대로 가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이내 맹렬한 반격에 부딪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길은 아무 곳에도 없다. 어떤 방안도 모든 스님들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길은 분명히 있다. 부처님이 가신 길이요, 아라한과 보살들이 가신 길이요, 조사들이 가신 길이 그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당장 그대로는 못간다 해도 아집과 이해관계 따위 불순물을 각자 털어버리고 옛 어른들의 뒤를 따르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양쪽이 약간씩만 한다고 해도 분규나 갈등은 손쉽게 풀리고도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제도에 있지 않고 마음가짐에 있는 까닭이다.

나는 우리를 뒤덮고 있는 저 먹구름 그 위에는 지금도 태양이 찬란한 광명을 발산하고 있음을 믿는다.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문의전화■
☎ 0343)468-7200(代)
·영업부 : 0343)445-6090
·FAX : 0343)445-3370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011)882-1149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 인가?
'영험한 치료제' 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